

‘차별’ 과 ‘증오’ 그리고 ‘이웃사랑’ ...

‘기부’와 ‘자원봉사’는 국경과 인종을 넘는 숭고한 인류애, 이웃사랑의 발로인가?

아프리카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인들의 동참을 호소해 노벨상 후보로까지 올랐던 영국의 밥 겔도프와 빼만 남은 앙상한 어린이를 안고 눈물로 도움을 호소했던 할머니 오드리 헵번의 모습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다.

3년전 미국 보이스카우트 중앙회는 동성애자가 스카우트 대원이 되거나 교사가 되는 것은 물론 미국공동모금회인 유나이티드웨이(United Way)의 지원을 받는 지역 스카우트(동성애자가 포함된)의 훈련 프로그램을 금지시켰다.

동성애자의 인권문제 그리고 차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었으며 미국 대법원은 5대 4로 동성애자를 배제하는 스카우트 본부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나이티드웨이는 이를 차별로 간주해 스카우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으며, 기부자들 역시 스카우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디펀딩(Defunding; 기부자가 특정한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 자신의 기부금을 주지 않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애자의 참여를 배제한 보이스카우트의 권리와 이를 차별로 간주해 전통적인 스카우트 프로그램에 대해 기부와 지원을 철회하고 있는 지원기관과 기부자의 결정 중 과연 어느 쪽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이 그리 쉽지 않은 않다.

또 한 가지 예를 살펴보자.

최근 이라크 전쟁 종전 선언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는 전쟁의 최대 희생자인 이라크 난민(특히 어린이)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이 한창이다.

지난 4월말 유명한 아동관련 국제구호기구인 Save the Children USA는 이라크 어린이를 위한 미국내의 모금이 한 달 동안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 금액인 300만 달러의 30분의 1밖에 안되는 것으로 아무리 전쟁 당사국이라고는 해도 미국내의 반전 분위기나 그동안 국제적인 분쟁, 기아 등에 대한 미국내의 관심과 참여에 비해 너무도 저조한 실적이다.

찰스 맥코믹 대표는 “미국인들이 이라크 어린이들이 처한 인도주의적인 상황보다는 전쟁 자체와 미국사회의 안보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미국사회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전쟁 당사국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로 기부에 소극적인 미국 시민들의 정서와 이번 전쟁으로 ‘현대사회의 가장 비극적 재앙’을 겪으며 절망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이라크 어린이들의 눈망울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인도주의’, 숭고한 ‘이웃사랑’은 어디쯤 자리하고 있는지... **KOVA**

